

### 전 세계가 주목하는 2월 5일 JY 선고심... 운명의 갈림길

# 총수공백 1년... 서서히 드러나는 삼성의 경고음

- 1 글로벌 협력서 소외
- 2 대형 M&A 올스름
- 3 中·인도시장서 고전
- 4 차세대 먹거리 부재

삼성 운명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5일 열린다.



삼성의 운명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은 지난해 2월 17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구심점을 잃고 비상경영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단일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50조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엔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실적을 이끈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 중국·인도 등에서의 휴대폰 사업 고전, 미래 먹거리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삼성전자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명의 2월'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길어지는 와병에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없이 1년여의 시간을 보낸 삼성이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삼성전자가 절감하는 최대 고민은 미래 먹거리다. 'CES 2018'에서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CES는 세계 전자업계 수장들이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이

부회장은 5년 연속 CES에 불참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협업체계를 굳히고 있다. 이번 CES에서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블로트퓨터와 협업해 개발한 무인헬기를 선보였고, 엔비디아는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신사업 진출 발표나 대규모 투자 소식은 없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사업 사장은 C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과의 교류도 중단됐다. 이 부회장은 중국에서 매년 열리는 바이오포럼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임이사직을 내려놨으며, 15년간 빠짐없이 참석했던 ICT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선벨리 콘퍼런스'에서도 못가고 있다.

대형 인수합병도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 전장장비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 외에는 굵직한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50조 시대를 열었지만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이끌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고점 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이후엔 정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감소 추세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에 빼앗긴 탓이다. 휴대폰은 이미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투자 계획도 미정이다. 삼성전자는 새해 첫 실적발표에서 한해 투자 계획을 알려주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

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못했다. 지난해 40조원 이상을 시설 투자한 영향도 있지만, 총수 부재 속에서 전문경영인들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절대적인 삼성전자는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총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하다.

1심에 이어 2심에도 중형 선고가 내려져 이 부회장 석방이 무산될 경우 삼성의 리더십 공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외신 역시 삼성의 글로벌 리더십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휘해왔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기간이 길어질 경우 '리더십 공백' '리더십 부재'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육중 경영'으로 총수 부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경영 일선에 있을 때에 비해 한계는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금감원이 연 판도라의 상자... 채용비리나 정상절차나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 고발 연루된 은행들 해명 등 혐의 부인 CEO·부정합격자 거취 수면 위로



(왼쪽부터)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JB금융지주(광주은행) 본점. /각사

은행권의 심각한 채용 비리 민낯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후 은행명과 CEO 실명 등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CEO 거취, 부정합격자 처리 문제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銀... "채용과정 문제없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까지 은행권 현장 검사를 한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된 국민·하나·광주·부산·대구은행 등 은행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채용비리 사례는 모두 22건이다. 하나은행이 13건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이다.

전날 심상정 의원실 등을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된 은행명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은행들은 보도자료와 공식해명 등을 통해 "채용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은행은 현 CEO인 윤종규 KB금

은행	내용	건수
하나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
하나	특정대학 출신 합격위반 조작	7
국민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3
대구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3
부산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2
광주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1

/자료=심상정 의원실 등

융지주 회장이 연루됐다. 그의 조카는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한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아 "글로벌 우대" 전형을 새로 만든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 대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특정인을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정할 바 없다"며 "입점대학 및 주요거래대학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5년 인사담당 부회장보가 자녀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은행 측은 "은행 내부에서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 인지해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은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합격한 임원의 자녀는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전국회의원 자녀, 은행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을 진행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해명 자료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CEO·부정합격자 거취는?

주요 은행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해당 은행 CEO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당국이 채용비리가 적

발된 은행에 대해 기관장 해임 권고 등 엄중 처벌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 회장 외 직접 연루되지 않은 CEO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 광주은행장을 겸임했던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징계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광주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지 2주일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

노조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점수까지 조작해 죄가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CEO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윤종규 회장 출근 저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나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관련 특혜채용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제다. 현재 은행권에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내규가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부정입사자에 대한 관련 내규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엔 언론에서 부정입사자의 출신과 성(姓)이 밝혀졌고, 사회적 파문도 커서 입사 취소 등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KT&G, 지난해 해외 매출 1조 돌파... 사상 최대 실적

KT&G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48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출 및 해외법인 연결 기준으로, 2016년의 해외 매출액 941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해외 판매량도 수출량과 해외

법인 판매량을 합산해 554억개비를 돌파하며, 2016년의 487억개비를 추월한 역대 최고 수량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1988년 수출을 시작한 KT&G는 이제 50여개국에 진출한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 기업이 됐다. 1999년 당시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해외 판매량은 18년 만

에 20배 이상 성장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 담배시장 개방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거센 공세를 방어하며 30여년간 축적한 품질 우선경영과 마케팅 역량에 기반했다는 평가다.

그간 KT&G는 주력 시장인 러시아와 중동 등에서 '에세(ESSE)'와 '파인(PIN

E)'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현지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며 판로를 확대해왔다. KT&G는 발 빠른 제품 공급을 위해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KT&G는 '국내담배', '해외담배', '홍삼'의 3개 사업부문에서 모두 매출 1조원을 돌파해, 국내외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이날 KT&G는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

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36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인상된 금액이다.

백복인 KT&G 사장은 "계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화강세 등 불리한 수출환경 속에서 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사업 성장성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